

韓国文化展示の所感

著者	徐 榮振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172-177
発行年	2000-07-24
URL	http://doi.org/10.15021/00002228

韓国文化展示の所感

徐栄振（光州日報社）

韓国のキムチと日本のキムチに差があるように、プルコギと焼き肉にも日韓日両国民の間で大きな意識の差が見られる。授業時間に日本の大学生が、焼き肉の中で牛の内臓料理をホルモン料理というのは土からの掘り物から由来したと解釈することに驚いた。韓国では英語の「Hormon」から由来していると解釈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しかし、日本人のホルモン料理は韓国と密接な関係がある。日本人は植民地時代以前までは牛肉などをあまり食べず、特に内臓は全部土に埋めていたが、植民地時代に徴用などで日本にわたってきた韓国人達が栄養補給のため土に埋めた動物の内臓を掘り出し、料理を作って食べているのを見て、これを食生活に導入、食べ物の名前を掘り物といい、これがホルモン料理と名付けられたという。

これは両国間の文化伝播と意識の差などを研究する良い資料の一つだと思われる。文化も国家と国民の間に相互作用を及ぼしている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最近、韓・日両国の文化に対し関心を持つ人が増えつつあるが、相手国の文化の自意的解釈や歪曲現象も現れている。そのため、両国の同質性と異質性を研究するのに、国立民族学博物館の機能と役割の責任が何より大きいと思っている。民族学博物館が日本において韓国を理解・研究し、韓国文化を正しく伝播するメッカになることを願い、今回新たに改装した朝鮮半島文化の展示物を注意深く観察した。

1980年代、韓国の民主化運動が盛んであるときに、韓国、とくに5.18民主化運動—光州事件の中心地であった光州では、反政府活動で犠牲になった大学生の葬儀行列が度々あったが、この模様が世界各国にTVニュースなどで報道されたりしていた。この葬儀行列は韓国の伝統葬儀とは異なる形態であった。私はこの模様を熱心に撮影する人々を見ながら、心配していた。この葬儀の様子が50~100年後、外国は勿論、韓国の中でも伝統葬儀として認識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憂慮していた。当時の葬儀は伝統の葬儀とは比較できないほど多くの報道陣と写真家、民間人により映像化されたからである。もし、このような葬儀模様が伝統の葬儀と誤解されると、これこそ歴史の歪曲になるという考えを捨てきれないのである。

今回の展示物は韓国社会の理解に大きく貢献したことは当然である。しかしながら、

韓國文化展示의 所感

徐榮振(光州日報社)

김치와 '기무치'가 차이가 있듯이 불고기와 '야키니쿠(燒肉)'에도 한일 양 국민 사이에 현격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업시간에 일본의 대학생이 야키니쿠중에 소의 내장요리를 '호르몬요리'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파낸 것(掘り物)'에서 연유한다고 해석하는 것에 놀랐다. 한국에서는 이를 영어의 호르몬(Hormon)에서 따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호르몬요리'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인들은 식민지 시대이전까지는 쇠고기 등을 별로 먹지 않았고 특히 내장은 전부 땅에 파묻었는데 식민지시대에 징용 등으로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던 한국인들이 영양보급을 위해 땅에 파묻은 동물의 내장을 파내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보고 이를 식생활에 도입, 음식이름을 '파낸 것-호리모노'라 했고 이것이 '호르몬요리'로 이름지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전파와 의식차이 등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화도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일 양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국 문화의 자의적 해석이나 왜곡현상도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두 나라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연구하는데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책임이 그 어느 곳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민족학박물관이 일본에 있어서 한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며, 한국문화를 바르게 전파하는 메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한반도문화 전시물'을 관심 깊게 살펴봤다.

지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한국, 특히 '5.18 민주화운동-광주사건'의 중심지였던 광주에서는 반정부 활동을 하다 희생당한 대학생의 장의행렬이 가끔 있었는데 이 모습이 세계 각 국에 TV뉴스 등으로 보도되곤 했다. 이 장의행렬은 한국의 전통장의와는 다른 형태였다. 나는 이 모습을 열심히 촬영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걱정을 했다. 이 장의모습이 50-100년 후에 외국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전통장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 것이다. 당시의 장례모습은 전통장례식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보도진과 사진작가, 민간인들에 의해 영상화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장의모습이 전통장으로 오해된다면 이 또한 '역사왜곡'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물은 한국사회를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憂慮すべきは一部の展示物の事実表現の不足である。例を挙げると、喪輿の後ろに喪服を着た人の人形が背をかがめずに立っている模様や、酒幕の屋根が銅板で作られている点などは深刻な問題と思われる。

韓国では喪主は罪人という考えから、頭を上げられないことが韓国と韓国人の孝の精神を理解させる象徴的な模様の一つと認識されていた。しかし、喪服を着た人形は滔々と直立している。

また、酒幕の屋根は韓国の伝統建築様式を説明するのに不可欠な部分である。草葺きの屋根は韓国を象徴する代表的な建築物であるが、酒幕の屋根が銅板にとって代わったのは、博物館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苦労は理解はできるが、観覧客に誤解を招く恐れがある。チャンドクテなどが鉄板で作られたのも残念であるが、銅板の屋根だけは改善策があ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酒幕を観覧客の休憩室として活用しながら、韓国文化を体験できる場所として考案したことは卓越した発想であると思われる。展示物と観覧客が一体になるようなこの発想は今後韓国の博物館展示においても参考にする価値が十分にあるだろう。また、展示技法で民博電子ガイドを作り、モノとの対話を誘導したことも遺物（資料）を過去の物や他人の物にとどまらず、現在の物として観覧客への理解を手助けし、より親近感を持たせる効果があると考えられる。ただ、現在では数量が少ない上、少々重いので、携帯用には多少不便である点は今後の改善課題となると思われる。

日本の動物園や水族館などを観覧したことはあるが、観覧客が自然との交感や対話を通じて環境保存意識を持たせるという努力をしていることを感じたことがある。とくに、大型建築物の中に自然環境をそのまま設置し、魚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体験できるようにした東京近辺のある水族館の企画には、新鮮な衝撃を受けた。歴史的な遺物展示や異民族の生活道具の展示も単純な展示ではなく、これを通じて歴史あるいは異民族との対話と交感が行われるよう研究が持続されることが望まれる。

展示企画者が今後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と海外に居住する韓国人コーナーを構想していることに関しては共感と関心を持っている。これは近現代の韓日関係の研究に重要な役割をすると信じている。この分野は研究と遺物収集の焦点を韓国だけではなく日本にも合わせるべきであると考えている。日本帝国時代に日本に徴用などで渡ってきた朝鮮人が日本と日本人に自然に与えた文化的影響もあるという点と、両国の文化が総合交流・交感する過程で新たな文化を生んだと言う点を見過ごしてはならないからである。

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 전시물의 사실구현 부족이다. 예를 들어 상여(喪輿) 뒤에 상복을 입은 상인(喪人)의 인형이 등을 구부리지 않고 뺨뺨이 서있는 모습이나 주막(酒幕)의 지붕이 동판으로 처리된 점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상(喪)을 당한 상주(喪主)는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한국과 한국인의 효(孝)정신을 이해시키는 상징적인 모습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상복을 입은 인형들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다.

또한 주막의 지붕은 한국의 전통건축양식을 설명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초가지붕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그런데 그 주막의 지붕이 동판으로 처리된 것은 박물관관계자가 밝힌 고층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관람객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장독대 등이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동판지붕’만은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막을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고안한 것은 탁월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시물과 관람객의 일체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착상은 앞으로 한국의 박물관 전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시 기법에서 ‘민박 전자가이드’를 만들어 물건과의 대화를 유도한 것도 유물을 과거의 것이나 타인의 것에 그치게 하지 않고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보다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수가 적은데다 조금 무거워 휴대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개선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동물원이나 수족관등을 돌아다니며 관람한 적이 있는데 관람객들이 ‘자연과의 교감’이나 대화를 통해 환경보존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끼곤 했다. 특히 대형건물 속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들여다 놓거나 물고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체험토록 한 도쿄부근에 있는 한 수족관의 기획에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역사적인 유물전시나 이민족의 생활도구 전시도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역사 또는 이민족과의 ‘대화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궁리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함을 느꼈다.

전시기획자가 앞으로 ‘한국에서의 일본문화’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코너를 구상하고 있는데 대해 공감과 관심을 갖는다. 이는 근현대 한일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 분야는 연구와 유물수집의 초점을 ‘한국’만이 아닌 ‘일본’에 대한 것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実際に日本帝国時代、数百人の朝鮮人労働者を使い鉱産業を行った日本人の2世は、幼少期に朝鮮人との思い出と共に当時朝鮮人の物と生活様式から多くの知恵を得られたと話す。

また、海外に居住する韓国人の中で、日本に居住している在日同胞と関連した物は韓国でも関心を持つべき重要な問題である。現在の在日同胞社会が徴用などで渡ってきた第1世代から第2、または第3世代に移る中で、同胞社会の意識と生活に大きな変化を見せているからである。同胞3世は既に韓国より日本化されているが、韓国と日本で国籍不明のような曖昧な位置に置かれている。このような時に、民博が中央アジアの高麗人、在米韓国人、在日韓国人と在日朝鮮人の文化を展示しようと言う企画は韓国の関係者には大きな刺激になると思われる。

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징용 등으로 건너와 생활하던 사람들이 일본과 일본인에게 자연스럽게 미친 문화적 영향도 있다는 점과 양국의 문화가 상호 교류, 교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잉태해 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제시대에 수백 명의 한국인 노무자를 두고 광산업 등을 했던 일본인 2세가 유년시절에 한국인들과 겪었던 추억과 함께 그 당시 한국인의 물건과 생활방식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음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중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교포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의 재일 교포사회는 징용 등으로 건너온 제1세대에서 제2세대 또는 3세대로 옮겨가면서 교포사회의 의식과 생활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포 3세대들은 이미 한국보다 일본화 되어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국적불명과 같은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민박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재미 한국인, 재일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문화를 전시하려는 기획은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리라고 생각한다.